



생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친필휘호 '言濟有(언제창생)'을 내렸다. 올바른 말과 글로써 뜻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의미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감로수 같은 언론이 되라는 충철살인의 일갈이다.

# 올바른 말과 글로 중생 제도 천년 이어가라

## 나날이 향기로운 소식 전해주시길

###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나누는 것으로 풍요로움이 더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듯 맑고 향기로운 공덕을 성실한 마음으로 나누어온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표방하며, 불국토를 위해 진력해온 한결의 기

사마저도 많은 불자들은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

천해 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생명을 살리는 매체로 발전해온 것은 굳은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천년의 시간을 늘 푸르게 살아가는 나무와 같이 불법홍포의 자리에서 진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사부대중의 신심과 열정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나날이 행복을 전하는 정문이기를 축원합니다.

###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창간된 현대불교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10월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으로 불자들에게 첫선을 보였던 현대불교는 지난 20년간 말 그대로 '좋은 신문'이라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현대불교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법에 대한 사명감과 의지로 불자들의 신행과

문화를 이끌고 지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매호 종사자들의 고민이 담긴 좋은 기사와 독자를 먼저 생각하고 신행을

바르게 이끌어 주는 기획물들이 현대불교가 지켜 온 정법 신문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미디어 세상에서 불교계 언론은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불교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역사가 지혜의 등불이 되어 항상 앞서가는 매체로 자리를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국민 가치관 정립에 선도 역할 당부

###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도의 지혜와 수행, 그리고 권익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불교 신문으로서 현 시대에 부응하여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

습니다. 이에 격려와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은 세계와 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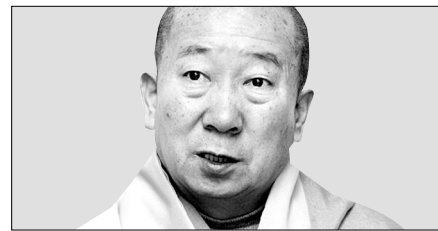
를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국가, 그리고 슬기로운 국민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특히, 우리 불교 언론들은 바른 알 권리를 제공하여 불교도와 더불어 온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도록 선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불교신문을 통하여 우리 불자와 국민들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자주 국민이 되도록 합니다.

## 오탁에 물들지 않는 불교 정론지 되길

###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불교의 외호와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작금의 시절언처처럼 불교 언론 또한 실시간의 정보와, 급속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처럼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론직필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되고, 창의적 사고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선한 해석이 취재 현장과 데스크에서 발휘 된다면 보다 혁신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오탁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불교 정론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 지면 그 자체가 생활법문의 장

### BTN불교TV대표이사 성우 스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지난 1994년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우리 불교TV도 내년 4월 개국 20주년을 앞두고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돌이켜 보면 불교언론사의 새로운 장을 연 지난 1994년은 불교계 인파로 커다란 격랑과 변화의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탄생한 <현대불교신문>이 주창한 '불교의 생활화'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대불교의 가장 절실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년간 펼쳐온 <현대불교신문>의 지면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활법문의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불법홍포를 위한 문서포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불사라 할 것입니다.

## 신뢰와 책임 바탕으로 제 2도약을

###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 일면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불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준 현대불교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현대불교는 내실 있는 기사와 심도 깊은 기획물을 연재하며 진정성 있는 불교 전문 매체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또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참 언론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동안 생명나눔과 지혜나눔의 앞길을 열어온 두 기관이 성년을 맞는 순간입니다.

이제 막 20살 청년이 된 현대불교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행스님 큰 원력서 태동된 정론지

###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장



### 정우 스님

축하드립니다. 창간 20주년을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 때마다 늘 기다려지는 불교지입니다. 20년전, 조계종단은 개혁불사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시절, 불교계는 참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마음선원에서 어렵고 힘든 불교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태동 되어진 언론지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력의 어머니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십니다. 그 원력과 2,000만 불자들의 신심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대불교신문입니다.

어느덧 현대불교 신문은 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신문으로 성장하여서 이 시대의 정론지로 햇빛이 되시고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언론이 되어서 부처님의 법음도 함께 전파하는 현대불교신문의 건강한 모습을 그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다양한 기사로 불자 신심 고양을

### 유민봉 청와대불자회 회장



언론을 통한 불법홍포와 한국불교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한마음선원장 故 대행 큰스님이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사는 2000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해왔습니다. 현대 불교신문사는 가장 먼저 인터넷 뉴스인 '붓다뉴스'를 만들어 불교 언론의 지평을 넓혔고, 다양한 기획 기사를 통해 불교 신행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교계 언론도 지난 10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이 신문의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들은 빠른 정보, 생방향에는 획기적이지만 풍부한 분석과 다양한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획과 풍부한 해석이 담긴 신행 포교 전문지로서 자리매김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엄경>에서는 '신심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창간 2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현대불교신문사가 쏟아낸 다양한 기사들이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켜 부처님의 수승한 법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불교미디어로 활발한 활동 기대

### 김희옥 동국대 총장



2만여 동국가족과 함께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994년 창간 이후 20년간을 한국불교의 정통 포교 실행지로서 끊임없이 달려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가 큰 변화를 맞이하던 1994년 창간돼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미디어 포교의 가장 앞에서 일해온 큰 신문입니다.

특히 불교 현대화를 주창하며 창간과 함께 운영했던 불교인터넷 포털인 '부다피아' 사이트를 통해 선도적인 뉴미디어 포교를 펼친 것은 젊은 불교, 미래 불교를 만들기 위한 귀중한 초석이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얼마나 앞서가는 신문이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앞서나가는 불교미디어로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건학 108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는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디어 빅뱅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귀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자리 머물지 말고 계속 정진하길

### 이재원 BBS불교방송 사장



먼저 현대불교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1990년대는 불교계 언론이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옹지를 품고 힘차게 도약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양한 교계 언론이 자신의 색깔을 지니고 새로운 목소리를 가다듬던 그 중요한 시기에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은 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 그리고 불교의 세계화를 기치로 새로운 시각에서 불교를 조명하고 널리 알리며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온 공덕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억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소극적인 실행생활을 적극적인 포교로 바꾸고 안으로만 여미던 불교계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로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다는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이 땅의 불교계 언론들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앞으로의 시간과 과제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지금까지 불자들의 묵묵함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불교계 언론으로서 새로운 소임을 모색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발전을 거듭하는, 불자들을 위한 현대불교신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지극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